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

주 재 창 *

1. 들어가며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에 기대되는, 그리고 농업이 가져야할 역할로서 '식량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농업에 의한 '지역활성화'라는 측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 진흥에 의한 고용창출 및 농촌지역의 인구유지·확대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본의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농가 인구와 농업 종사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농업에 의한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농업이 안고 있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농가 구조

2.1. 주요 지표

<표 1>은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농가인구와 그에 따른 고령화 추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먼저 농가인구수는 2010년 650만 명에서 2015년 488만 명, 2016년 465만 명, 2017년 437만 명으로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수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의 농가수도 2010년 223만 명에서 2017년 182만 명으로 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mariajic@korea.kr).

총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4.3%에서 2017년 41.7%로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 농가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표 1> 일본 농가구조 현황 및 고령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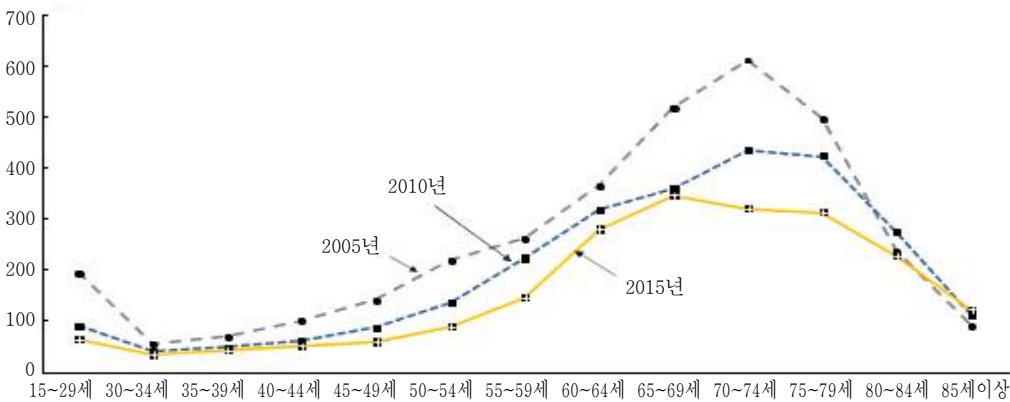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농가 인구(만 명)	650.3	488.0	465.3	437.5
이중 여성인구	329.4	244.9	233.5	219.7
이중 65세 이상	223.1	188.3	184.7	182.3
총 인구대비(%)	5.1	3.8	3.7	3.5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34.3	38.6	39.7	41.7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2.8	26.2	26.9	27.4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구(자영농업 종사자)는 약 209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약 51만 명(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또한 40세 미만의 농업취업인구는 2005년 32만 명에서 2015년에는 14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한편, 2015년 기준 농업취업인구의 평균연령은 66.4세이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연령별 농업 취업인구수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

2.2. 신규 취업농업인 현황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취업농업인(新規就農者) 수는 6만 150명으로 2년 연속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을 기점으로 신규 취업 농업인 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49세 미만 신규 취업농업인 수는 2만 2,050명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또한 취업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신규 가족농 종사자(新規自営農業就農者)¹⁾는 4만 6,040명, 신규 고용 농업취업인(新規雇用就農者)²⁾는 1만 680명, 신규 창업농업인(新規参入者)³⁾은 3,44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 가족농 종사자는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 농업관련 법인 고용자와 신규 창업농업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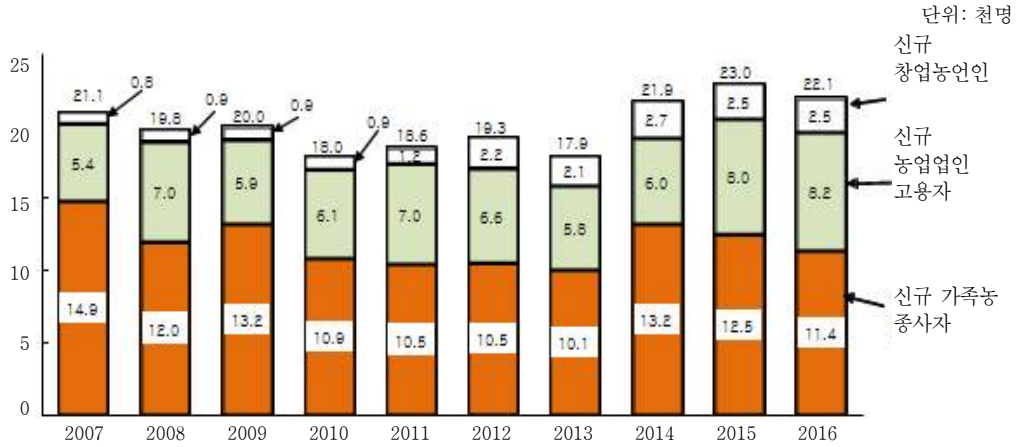
<표 2> 일본 신규 취농자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취농 형태별				
		49세 미만	44세 미만	신규가족농 종사자	신규고용 농업취업인	신규 창업농업인
2007	73,640	21,050	—	64,420	7,290	1,750
2008	60,000	19,840	—	49,640	8,400	1,960
2009	66,820	20,040	—	57,400	7,570	1,850
2010	54,570	17,970	—	44,800	8,040	1,730
2011	58,120	18,600	—	47,100	8,920	2,100
2012	56,840	19,280	17,260	44,980	8,490	3,010
2013	50,810	17,940	16,020	40,370	7,540	2,900
2014	57,560	21,860	18,500	46,340	7,650	3,660
2015	65,030	23,030	19,760	51,020	10,430	3,570
2016	60,150	22,050	19,020	46,040	10,680	3,44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취농자 실태조사」.

- 1) 가족 경영체의 가구원으로 조사 시작 전 1년간의 생활형태가 학생으로부터 자영농업으로의 종사가 주인 사람 및 다른 곳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자가 자영농업으로의 근무가 주가 된 사람을 뜻함.
- 2) 조사 시점 전 1년간 새로운 법인 등에 상시고용으로(연간 7개월 이상)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한 자를 뜻함(단, 외국인 연수생 및 외국인 기능 실습생, 고용되기 직전의 취업 상태가 농업 종사자일 경우 제외).
- 3) 조사 시점 전 1년간 토지 및 자금을 자체 조달(상속증여 등으로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를 제외함)하고 새롭게 농업경영을 시작한 경영 책임자 및 공동 경영자를 뜻함.

<그림 2> 49세 이하의 취농 형태별 신규 취업농업인 수 추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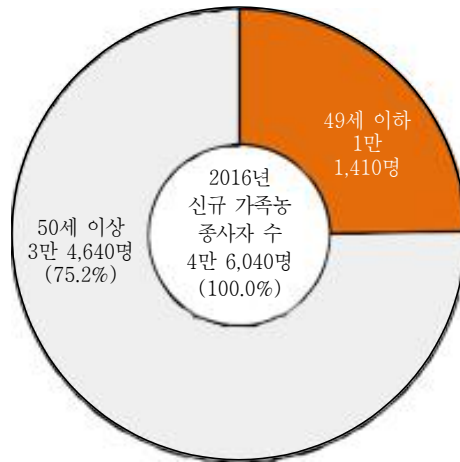
다음으로 취농 형태별 신규 취업농업인 수 추이와 연령별, 성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규 가족농 종사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4만 6,04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6,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학계 관련 학교를 졸업하여 취농한 사람은 1,560명이나 2013년,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4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4.8%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만 5,310명, 여성이 1만 74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 일본 신규 자영 농업 취농자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남녀별	
		신규 농과계 취농자	49세 이하	44세 이하	남성	여성
2013	40,370	1,640	10,090	8,880	31,700	8,670
2015	51,020	1,670	12,530	10,70	38,990	12,030
2016	46,040	1,560	11,410	9,390	35,310	10,740
증감율(%)						
16/13	14.0	△ 4.9	13.1	5.7	11.4	23
16/15	△ 9.8	△ 6.6	△ 8.9	△ 6.8	△ 9.4	
구성비(%)						
2013	100.0	4.1	25.0	22.0	78.5	21.5
2015	100.0	3.3	24.6	19.7	76.4	23.6
2016	100.0	3.4	24.8	20.4	76.7	23.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그림 3> 49세 이하의 신규 가족농 종사자 분포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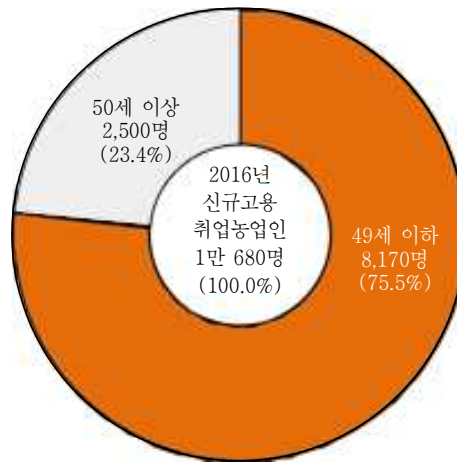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등 고용에 의해 농업에 취업하게 된 신규 고용 취업농업인 수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신규 고용 취농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만 명을 넘어서 2016년에는 1만 680명 이었다. 이 중 농과계 학교 졸업 후 농업법인에 취업한 수는 1,830명으로 210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년 대비로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사항으로 49세 이하와 44세 이하 연령층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로는 여성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일본 신규 고용 취업농업인 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남녀별	
		신규 농과계 취농자	49세 이하	44세 이하	남성	여성
2013	7,540	1,370	5,800	5,270	4,970	2,580
2015	10,430	2,060	7,980	7,360	7,300	3,120
2016	10,680	1,830	8,170	7,410	6,890	3,780
증감율(%)						
16/13	41.6	33.6	40.9	40.6	38.6	46.5
16/15	2.4	△ 11.2	2.4	0.7	△ 5.6	21.2
구성비(%)						
2013	100.0	18.2	76.9	69.9	65.9	34.2
2015	100.0	19.8	76.5	70.6	70.0	29.9
2016	100.0	17.1	76.5	69.4	64.5	35.4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그림 4> 49세 이하의 신규 고용 취업농업인 분포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신규 창업농업인의 경우에는 2013년 대비 약 500명 이상 증가한 3,440명으로 49세 이하, 44세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관련 법인의 경영 책임자 수는 증감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공동경영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분포 추이를 분석한 결과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 창농자 수가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농업과 관련된 경영리더로서 한층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신규 창업농업인 수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경영책임자·공동경영자		남녀별	
		경영책임자	공동경영자	남성	여성
2013	2,900	2,900	—	2,560	330
2015	3,570	2,970	600	2,890	680
2016	3,440	2,870	570	2,770	670
증감율(%)					
16/13	—	—	—	—	—
16/15	△ 3.6	△ 3.4	△ 5.0	△ 4.2	△ 1.5
구성비(%)					
2013	100.0	100.0	—	88.3	11.4
2015	100.0	83.2	16.8	81.0	19.0
2016	100.0	83.4	16.6	80.5	19.5

주: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기존의 경영책임자에 더해 새롭게 공동경영자를 포함하였음. 따라서 2013년조사결과에는 공동경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6/13년도의 증감율은 -로 표기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3. 일본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3.1.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일본 역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고령화 문제 및 후계자 부족에 따라 농업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 취업자 평균연령이 66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일본은 청년층의 신규 취업 영농인 수를 늘려 세대 간 균형 잡힌 농업 취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차세대를 담당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지원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지원 사업으로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지원 사업의 포인트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농업인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취농에 대한 검토 및 준비 단계부터 취농 개시를 거쳐 경영을 확립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2023년까지 40대 이하의 농업종사자 수를 40만 명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지원사업은 2016년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에 의해 결정된 농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크게 '준비형'과 '경영 개시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취농 준비형의 경우 취농 전의 연수기간(2년 이내)동안의 생활 안정자금⁴⁾이 지원된다. 사업실시 주체는 각각의 도도부현과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⁴⁾가 담당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원칙으로 취농 개시 시점의 나이가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수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한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독립·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 영농승계자를 대상으로 연수종료 후 1년 이내 및 지원 기간의 약 1.5배(최저 2년)이상의 영농기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농승계의 경우 5년 안에 영농승계 또는 공동 경영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자는 일본 국내 2년 동안의 연수기간과 더불어 자신 만의 영농비전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액은 최장 2년 동안 연간 150만 엔에 달한다. 2016년 일본 농림수산업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에 준비형으로 2,461명이 선정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차지하는

4)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는 전국 농업 회의소 내부 기구로 전국 농업 회의소는 "농업 및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임.

비율이 33%, 뒤를 이어 40대가 15%, 10대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성이 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출신별로 나누었을 경우 농가 출신은 37%, 비농가 출신이 63%로 비농가 출신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수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업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51%, 선진농가와 농업생산법인으로부터 연수받은 비율이 38%, 나머지는 시정촌과 공사 등에서 연수 받은 비율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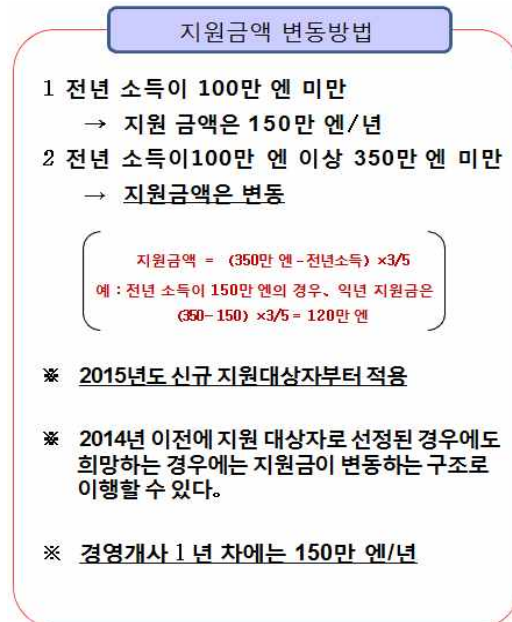
<표 6> 준비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의 특성

2016년 준비형 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총 2,461명)			
연령별	남녀별	출신별	연수기관별
10대 290명(12%) 20대 1,009명(41%)	남성 2,072명 84%	비 농가출신 1,555명 63%	농업대학 등 교육기관 1,254명(51%)
30대 801명(33%) 40대 361명(15%)	여성 389명 16%	농가출신 906명 37%	선진농가 938명(38%) 기타(시정촌, 공사 등) 269(1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다음으로 경영 개시형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주체는 해당 시정촌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영, 기술, 자금, 농지에 대해서 지원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자는 준비형 사업과 동일하게 45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연간 150만 엔으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신규 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는 전년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즉 지원 금액을 5년간 일률적으로 150만 엔으로 하면서 전년소득이 250만 엔을 초과할 경우 지원사업을 중지하였던 기존 지원방식을 수정하여 전년 소득 대비 차등 지원함으로써 신규 취업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5> 소득에 따른 지원 금액의 변동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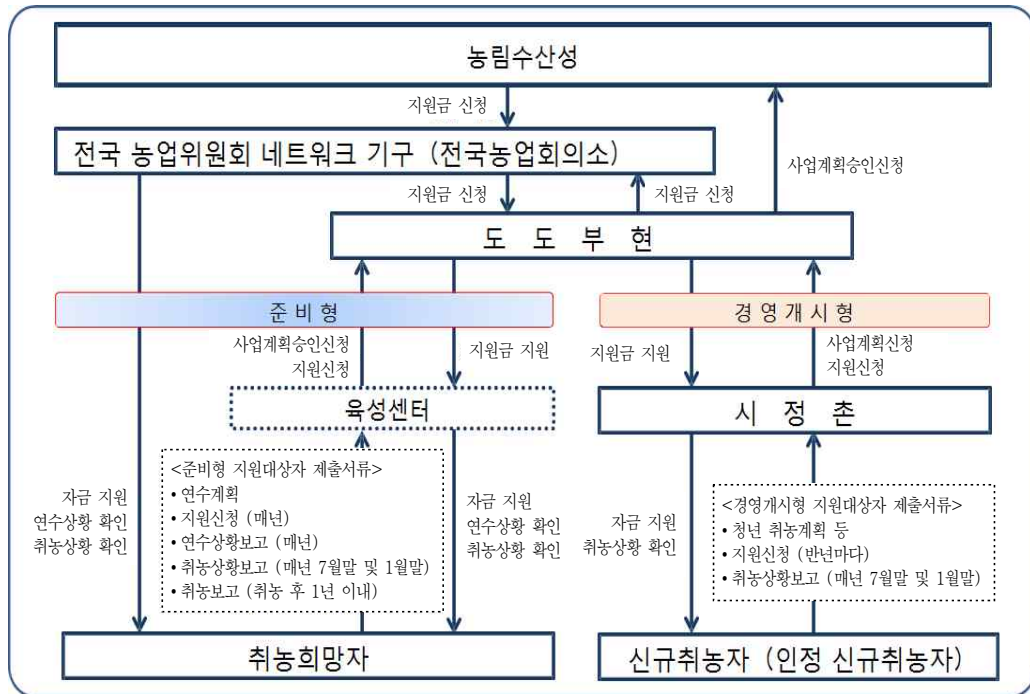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주요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시정촌에서 적절한 영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영농승계(승계 후 5년 이내)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영농을 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의 경우 친척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5년간의 지원 기간 내에 명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원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지원 방침을 결정한다.

2016년 경영 개시형 사업에 선정된 자는 12,318명으로 30대가 6,001명(49%)으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935명(32%), 20대가 2,376명(19%), 마지막으로 10대가 6명(0.05%)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남녀 비율로는 남성이 83%, 여성이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의 경우 농가 출신이 6,310명(51%), 비농가 출신이 6,008명(49%)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노지야채가 3,355(2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야채 2,908(24%), 복합영농 1,558(13%)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농업 차세대 인재 강화 지원사업의 실시주체 및 절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표 7> 경영 개시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의 특성

2016년 경영 개시형 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총 12,318명)			
연령별	남녀별	출신별	영농형태별
10대 6명(0.05%)	남성 10,276명 83%	비 농가출신 6,008명 49%	노지야채 3,355명(27%)
20대 2,376명(19%)			
30대 6,001명(49%)	여성 2,042명 17%	농가출신 6,310명 51%	시설야채 2,908명(24%)
40대 3,935명(32%)			복합영농 1,558(1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3.2. 농(農)의 고용사업 및 농업 고용 개선 촉진 사업

농의 고용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법인 취업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위해 마련된 정책 사업이다. 또한 국내 및 해외연수의 적극적인 실시를 통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실시

주체는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45세 미만의 정사원을 고용하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엔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고용자의 독립법인 설립 지원을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최대 120만 엔,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3년 이후에는 최대 60만 엔으로 지원금액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세부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과거 5년간 본 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고용노동자가 농업에 정착하는 비율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후생연금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수 대상자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 등에 정규직으로 연수 개시 시점으로 4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두어 선정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업 회의소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지원을 받아 농업의 고용 환경 개선의 지원과 함께 취농 희망자에 대한 원활한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농업 고용 개선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 법인 등에서 일자리나 노무 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조언 등을 실시하여 '일하고 싶은 농업 환경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용 관리 연수회·상담회를 개최하여 농업법인 등의 경영주나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를 토대로 한 농업의 고용 관리 방법, 처우 개선, 산재 특별 가입 등 노동 보험 가입 촉진, 사회 보험 가입 촉진 등을 테마로 한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 모델 구축을 통해 고용 관리 개선 모델이 되는 농업법인을 선정하여 다른 농업법인이 노무 관리, 직장 환경 정비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3. 농업 경영확립 지원사업

농업 경영확립 지원사업(구 신규취농자 육성지원사업)은 뛰어난 경영 감각을 갖춘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로 농업계 고등학생 및 농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업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과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능력과 생산 기술력의 습득 도모를 위하여 농업기관 등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과계 졸업자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실제 농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지역별 농업계 고교생 대상 농업 취업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

나가사키 현 - 농업계 5개 고교 현지 연수 프로그램

【대 상】

나가사키 현 내 농업계 고교 1~2학년 대상(52명)

【주요 내용】

후쿠오카 현 내의 시설야채생산법인, 직매장 등의 현지연수 실시

- ① 시설야채를 생산하는 법인의 경영자와 경영정책 고용을 통한 취농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② 직매장, 중앙도매시장(청과)에서 출하 후 청과물의 유통상황과 선도확보 등 견학
- ③ 신 농업인 대회에 참가하고, 취업과 관련된 농가와 법인등에 대한 정보수집



시가 현-출장수업 및 선진 농업인과의 현지연수 실시

【대 상】

시가 현 농업계 고교 2~3학년 대상(19명)

【주요 내용】

현 내 농업대학교 학생 등에 의한 출장수업과 선진 농업인 농가 현지연수

- ① 농대 재학생 및 교직원과 농대에서의 강의, 실습내용과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청취
- ② 현 내에서도 톱 클래스 선진농가를 방문하여 성공하기까지의 스토리 및 농업에 대한 가능성 청취 및 농대를 졸업한 선배들과 농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4.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4.1.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은 농업법인에 취업 체험을 하는 제도이다. 전국 농업회의소는 1999 년도부터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직장으로서 농업 참여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평소 먹고 있는 식량과 그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턴쉽 내용으로는 전국농업회의소와 연계된 전국 300개의 우수 농업법단체를 대상으로 연수기간은 1주부터 6주까지 다양하다. 참가비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식비와 숙박비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응모자격은 학생 및 사회인, 농업경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건강한 체력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그림 8>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과계 학생



자료: 일본 전국 농업회의소 홈페이지.

4.2. 연수 농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연수 농장 프로그램은 신규 취농 희망자를 고용하여 육성하고 있는 농업법인과 현장에서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시정촌, 농업 공사, 농업법인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이 주목되는 지금, 농업계 자체의 인재육성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하고 농지 주택의 알선, 농업법인 등으로의 인재 파견 등으로 연계하고 있어서 취농 희망자와 수용자의 요망을 조율하여 양측이 원하는 취업 영농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연계하고 있는 시정촌, 농업법인 등에 신규 취농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신규 취업 영농을 목표로 현장 연수를 하고 있는 연수생을 다른 지역의 시정촌, 농업 공사 등에서 일정 기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함께 교육 수료생이 원하면 타 지역에서 취농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특징, 생산기술,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도쿄·오사카 등 전국 신규 취농 상담센터가 개최하는 신규 취농·취업 박람회(신 농업인 페어)에 적극적 협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9> 신규 취업 농업인 육성과 확산을 위한 신·농업인 박람회



자료: 일본 전국 농업회의소 홈페이지.

5. 요약 및 시사점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된 가운데 지속 가능하고 미래가 보이는 농업을 실현하려면 청년 농업인 및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취업 영농과 영농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습득이나 소득의 확보 등에 대한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농업법인 등의 청년 취업 영농인의 고용에 있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고도의 경영 능력·지역 리더로서의 역량 등을 양성하는 농업인 경영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취업 영농에 관한 상담체제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취업 영농 의욕의 환기와 취농 후 안정적인 정착 유도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대폭적인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사이트

일본 전국 신규취농상담센터(<http://www.nca.or.jp/Be-farmer/event/>) (검색일: 2018.01.10.)

일본 전국 농업회의소(<https://www.nca.or.jp/>) (검색일: 2018.01.20.)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 (검색일: 2018.01.26.)

일본 JA 홈페이지(<https://agri.ja-group.jp/support/start/about.php>) (검색일: 2018.01.26.)

일본 정책금융공고(<https://www.jfc.go.jp/n/finance/syunou/tebiki.html>) (검색일: 2018.01.20.)